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

담당자: 홍서운 수석대변인(010-4455-8255)/유민아 대변인(010-6559-3099)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20일, 중간보고회 개최,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화와 유권자 영역 확장에 총력 다해

- 3개 단, 7개 본부의 80여명 실무 인원과 400명 이상의 청년선대위 인원이 적극 활동
- 국민 목소리 직접 듣고, 국민의 삶 바꾸는 정책적 접근으로 진정성 있는 선거 활동에 임할 계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가 20일 오후 4시 청년 선대위 활동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청년선대위는 3개 단·7개 본부 80여 명의 실무 인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청년선대위의 양대 축인 ‘리스너프로젝트’와 ‘미래정부준비단’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활동 내용과 향후 청년선대위의 활동 방향을 알리는 자리로 준비됐다.

청년선대위는 우선 탈모약 지원 공약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리스너프로젝트 진행 경과에 대해, 1,000여 건의 인터뷰를 질적·양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리스너프로젝트의 평균 참여 연령대는 20대와 30대로 수도권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인구 분포가 반영된 결과라 설명했다. 리스너프로젝트에서 ‘정부가 잘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코로나 방역이 상당수였지만, ‘정부가 잘 하지 못한 일’에도 코로나 방역이 주요했다.

리스너프로젝트에 참가한 스피커들 가운데 ‘정부가 평소 고민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청년 지원, 주거안정, 코로나 방역 순의 답변이 나왔으며 응답자의 다수는 코로나19와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최근 행복한 기억이 ‘없다’고 답해 정치가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임을 설명했다.

이어 청년선대위 미래정부준비단은 13개 위원회를 운영하며 지금까지 각 위원회를 통해 진행된 활동 내용을 공유했다. 한부모가족의 새로운탄생위원회 심지현 위원장은 1월 초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안한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소득 기준 폐지’와 ‘한부

모 양육비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가 이재명 후보의 정책으로 반영되었음을 발표했다. 미래정부준비단의 빈집해결위원회는 이달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순회하며 지역의 빈집을 찾아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빈집이 새로운 지역 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공공의료품질관리위원회는 청년 간호사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에게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7일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폐지수거어르신위원회는 폐지를 수거하여 자원순환을 하는 어르신들의 이름이 삭제되고 있다며 '자원순환 활동가'라는 명칭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6만 6천여 명의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정부준비단의 활동 사항을 보고한 이대선 국제인권연대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인권 문제에도 함께하며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대표 자전거 라이더인 우원식·이용빈 국회의원과 함께 '목숨걸고 자전거 라이딩'을 진행한 더나은자전거위원회는 2월 중순 전국의 자전거 라이더와 함께 민주당 미래당사에서부터 여의도 중앙당사까지 자전거 라이딩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전거 인구를 위해 탄소중립 자전거 인프라와 제도, 교육 정책을 제안한다.

이외에도 미래정부준비단에는 전국 순회 중인 도시재생활성화위원회와 지방자치 및 젊은 정치인들을 발굴하는 청년정치발전위원회, 2,500명의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표하는 보호종료새시작위원회와 육아편한세상위원회, 세입자안전위원회 등이 각 분야를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다.

탄소중립 등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청년선대위에서도 친환경 선거 실천을 진행하고 있다. 평소 쓰레기 문제와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동학 최고위원과 청년선대위 녹색선거위원회에서는 2월 10일까지 '녹색선거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청년선대위 차원에서는 선거 캠프 내 플라스틱 줄이기, 종이 현수막 사용과 재생용지 임명장 및 디지털 임명장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질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030세대의 마음을 얻을 만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권지웅 공동선대위원장은 “저희의 생활 가까이 있는 것들이나 1인 가구를 위한 법안이나 정책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지웅 위원장은 연대관계등록법이 1인가구나 친구 등과 동거하는 가구에게 필요한 법안임을 설명하며, 혼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가족구성 방식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금개혁 질문에 대한 청년선대위의 입장’ 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중 세대가 너무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원칙적으로 다를 필요가 있다’ 고 입장을 밝혔다. ‘2030여성 공약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여성공약 중 ‘성별 임금격차 해소’ 와 ‘산부인과 명칭 변경’ 이 주요하며 데이트 폭력·디지털 성폭력 근절 등에 대한 공약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청년선대위 중간보고 일정은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민주당 제2당사 미래당사 ‘블루소다’ 에서 진행됐으며, 블루소다는 기존의 정치 공간의 틀을 깬 청년들을 주축으로 한 정치공간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인 ‘유니버설 디자인’ 과 ‘자원순환 선거캠프’ 를 지향하고 있다. (끝)





